

사계절 무한대의 환상적인 골프코스 향상을 기대합니다.

임핑 디너스타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갈평(10 구간 광복 동원도 산동 (명절 특별판) 10 선수권 콘서트 개최)
- 우천시 9월 이후 특별요청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3일 오전 제 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이 담긴 5·18민주묘지에서 7선녀들에 의해 채화됐다. 한 선녀가 채화된 성화를 박광태(왼쪽에서 두번째) 광주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리porter기자 mjna@kwangju.co.kr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내일 광주서 팡파르

전국 16개 시·도 5,459명 참가
광주 3위·전남 최하위 탈출 노려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5일 오후 7시 광주시청 시민광장에서 '한마음축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5천45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이번 체전은 5~9일까지 광주 월드컵경기장 등 30개 경기장(전북 1개 포함)에서 분산 개최된다. 23개 종목(정식 21, 전시 2)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될 이번 체전에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많이 즐기는 게이트볼이 처음으로 전시종목으로 채택됐다. 광주시는 23개 종목에 452명(선수

328명, 임원 124명)이 참가해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남은 18개 종목(정식 17, 전시 1)에 165명(선수 117명, 임원 48명)이 참가해 최하위권 탈출을 노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08 장애인 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전남 사격의 보배 이윤리와 육상 4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운 홍석만, 보치아 2관왕 박건우 등 페달리틱 출신 선수 77명도 모두 참가해 감동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5일 오후 7시 광주시청 시민광장에 16개 시·도 선수단이 모여 '한마음 축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고, 6일 오후 6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열전에 돌입한다. 개막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박광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하며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몽골 대표단이 광주를 방문해 대회를 참관한다. 한편 6일 '빛으로 그린 꿈'으로 펼쳐질 개회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고사줄놀이로 시작으로 식전행사 '작지만 큰 시작', '무등을 깨우다', '다함께 건강한 빛으로' 등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다. 장애인 타악팀의 '무등산이 깨어나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식후 행사는 '빛고를 광주'와 '빛 속에서 어우러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모습'에서 빛고를 광주가 빛의 터전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최첨단 쇼가 펼쳐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4홀 연속 버디... 신지애 가장 빛났다

LPGA 삼성월드챔피언십
첫날 버디 6개 단독 선두

세계 지존을 꿈꾸는 신지애(20·하이마트)가 '별들의 전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 첫날 가장 돋보이는 샷을 날렸다. 신지애는 3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해프몬베이 골프장 오션코스(파72, 6천450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에 1개로 막고 버디 6개를 쓸어들여 5언더파 67타로 단독 선두에 뛰어 올랐다. 상위 랭커 20명만이 초청장을 받은 이 대회에서 신지애는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 실력을 뽐냈다. 7번홀까지 파를 지키던 신지애는 8번홀(파5)과 9번홀(파3)에서 1타씩을 줄여 서서히 샷을 달구기 시작했

고 12번홀(파3)부터 15번홀(파4)까지 4개를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16번홀(파4) 보기에 티였지만 78%에 이르는 그린 적중률과 27개에 불과한 퍼트수는 세계 정상에 도전하기에 충분한 실력이었다. 짙은 안개가 끼어 한때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신지애도 10번홀에서 한동안 기다렸지만 "시간을 갖게 돼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드라이버샷이 몇차례 퍼어웨이를 벗어나기도 했지만 대체로 괜찮았고 아이언샷과 퍼트가 매우 안정적이었다"며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 이후 자신감이 생겼다. 이번 대회도 우승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희망 플라 크리머가 4언더파 68타로 신지애에 1타 뒤진 2위, 신



지애와 같은 조에 편성된 최나연(21·SK텔레콤)도 3언더파 69타로 공동 3위에 올라 선두를 추격했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전 세계랭킹 1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벌인 신·구여제 대결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다. 오초아는 전반에 보기 2개와 버디 2개로 타수를 줄이지 못해 1타를 줄

린 소렌스탐에 뒤졌지만 10번홀(파5)에서 32m짜리 칩샷을 홀에 떨어뜨려 이글을 낚고 17번홀(파3)에서도 버디를 잡아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오초아와 소렌스탐은 나란히 3언더파 69타를 쳐 최나연, 청아니(대만), 김승희(20·힐라코리아), 안젤라 스탠퍼드(미국)와 3위 그룹을 이뤘다. /연합뉴스

안선주 마침내 해냈다

KLPGA 삼성금융 우승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주저앉았던 안선주(21·하이마트)가 한국여자프로골프 삼성금융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안선주는 3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골프장(파72, 6천264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에 그쳤지만 사흘내내 선두를 지킨 끝에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3승을 거뒀던 안선주는 올해 준우승만 3차례 차지하다 첫 승을 올렸다. 내년 시즌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도 도전하는 안선주는 홀기분한 마음으로 오는 12월 LPGA 투어 캘리포니아를 최종전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상금 6천만원을 보낸 안선주는 시즌 상금 2억원을 돌파했다. 윤채영(21·LIG)은 8언더파 208타로 2위에 머물렀고 전날 2위였던 장지혜(22·하이마트)는 5언더파 211타, 공동 5위로 떨어졌다.

광주 상무 영광서 연패 탈출 노려

내일 포항과 K-리그 21R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영광을 방문해 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상무는 5일 영광스포티움 종합운동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의 2008 K-리그 2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달 18일 영광군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된 이번 경기는 축구 저변 확대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회를 기념해 스포츠댄스 공연과 음악 줄넘기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대형 TV,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의 경품도 지급된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대신 영광스포티움에서 뛰게 된 상무 선수단은 1일

부터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해 승점 3점을 노리고 있다. 컵 대회 포함 8연패 행진으로 21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진 상무는 대전, 부천(현 제주), 부산이 가지고 있는 프로축구 최다연속 무승부 22경기 타이 기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승점 3점이 절실하다. 상무는 최근 포항전 4연패를 비롯해 정규리그에서 2003년 이후 단 한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지난 1일 포항이 리그컵 6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체력이 소진된 만큼 초반부터 상대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등 매서운 공격축구로 무승의 부진에서 탈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민 남동생' 이용대 광주 팬 사인회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국민 남동생' 이용대 선수가 3일 광주에 와 팬들을 만났다. 김중수 감독도 함께 했다. 이 선수는 이날 전남대체육관에서 열린 2008 광주드림배 여성배드민턴대회에 참석, 팬 사인회(사진)를 가진 것. 이날 사인회에 대회 참가자와 가족, 이곳을 지나는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몰려 이용대 선수의 식지 않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용대 선수는 "올림픽 참가후 광주에 처음 방문했는데 시민들의 배드민턴 사랑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오늘 광주서

두산과 마지막 경기

KIA 타이거즈가 4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2008시즌을 마감한다. 지난 3월29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대구전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KIA는 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전을 마지막으로 시즌 126경기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날 경기가 끝난 후 선수단은 그라운드에 나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인볼을 팬 서비스로 제공했다. 또한 추첨을 통해서도 로코우면도기, 에버랜드 이용권, CNK안마기,增高골프스과 폰도 이용권 등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히어로즈 새 사령탑

김시진 씨 유력



프로야구 히어로즈 새 사령탑으로 김시진(50·사진) 전 현대 유니콘스 감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준 전 단장이 자진 사임한 2일 이장석 히어로즈 구단 대표는 이광환 감독을 중도 하차시키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고, 김시진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해 팀을 정상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토)
▲제28회 삼성월드챔피언십 골프 대회 2R(07:30-KBS N SPORTS)
▲2008 메이저리그 AL 디비전 시리즈 2차전(09:00-XSPORTS)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주니치)(13:45-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우리: 한화)(16:30-KBS N SPORTS), <SK: 삼성>(16:50-XSPORTS), <롯데: LG>(17:00-MBC ESPN)
▲2008 K리그<성남: 경남>(18:50-SBS스포츠)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브롬위치: 풀럼>(23:00-MBC ESPN)
5일(일)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블랙번: 맨체스터Utd>(01:00-MBC ESPN), <선덜랜드: 아스날>(03:00-MBC ESPN),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23:00-MBC ESPN)
▲제28회 삼성월드챔피언십 골프 대회 3R(01:30-KBS N SPORTS)
▲2008 PGA 터닝스트론 리조트 챔피언십 3R(03:00-SBS스포츠·SBS 골프)
▲K리그<광주상무: 포항스틸러스>(14:55-MBC·KBS N SPORTS)
▲한국오픈골프 4F(15:30-SBS)
6일(월)
▲08/09 프랑스 리그 축구<생테티엔: AS모나코>(00:00-KBS N SPORTS)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첼시: 아스톤빌라>(01:00-MBC ESPN)